

# 버추얼 휴먼, 반짝 인기 끝?... 높은비용·활용한계 '발목'

〈가상인간〉

메타버스 열기 시들자 활동 급감  
광고·굿즈 확장 실패, 수익성 한계  
영상 제작 수천만원... 비용 부담 ↑  
게임사, AI기술 본업에 활용 추진

지난해까지 국내 게임사들이 대거 선보인 가상인간(버추얼 휴먼)이 어느 사이에 사라졌다.

넷마블 '리나', 크래프톤 '애나' 등이 다. 업계는 많은 비용과 활용방안을 부재의 이유로 꼽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그래픽과 AI기술로 실제 인간의 모습처럼 구현된 버추얼 휴먼의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활력을 상실했다.

근간 게임업계는 기술력을 활용해 실제 인간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팬들과 소통하는 버추얼 휴먼을 제작해 선보였다. 2019년 이후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됨에 따라 매니아층들의 소비력도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게임업체들은 버추얼휴먼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 굿즈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표적인 기업이 넷마블,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등이다.

하지만 버추얼 휴먼 투자를 통한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



스마일게이트 버추얼 휴먼 '한유아' /스마일게이트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메타버스 열기가 주춤해지기 시작하면서다.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비용도 적지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사들은 본업인 게임 개발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실제 가장 버추얼 휴먼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넷마블은 2022년 '리나'를 선보였지만 지난해 1월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넷마블에프앤씨의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리나'는 방송, 음원발매, 광고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지만 2년이 채 가지 못하고 없어진 것.



넷마블 디지털 휴먼 '리나' /넷마블

넷마블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리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리나와 같은 해에 개발된 크래프톤의 '애나'도 2023년 9월부터 활동이 없어졌다. 애나도 리나와 마찬가지로 음원, 소통 등 버추얼 아티스트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공식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버추얼 휴먼도 있다. 크래프톤에서 버추얼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던 '위니'다. 위니는 출시 이후 1년만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나름 버추얼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넷마블 '메이브', 스마일게이트 '한유아' 등도 활동이 줄어들었다.

음원과 영상 콘텐츠들의 조회수들은 2년전과 비교해 90% 이상 줄어들었다. 실제 메이브의 음원 '판도라'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455만회를 기록해 대성공을 기록했지만 최근 영상 콘텐츠는 1만을 겨우 넘어섰다.

이에 게임사들은 본업인 게임개발에 집중하면서도 버추얼 휴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AI 기술력을 활용하고 나섰다. 그간 버추얼 휴먼 개발에 투자된 막대한 비용을 게임개발에 녹여겠다는 것.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버추얼 휴먼은 한 때 큰 유행을 탔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 같다. 몇 십초짜리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기술력을 본업인 게임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많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을 축적하겠지만 당분간 눈에 띄는 활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지그재그, 당일 배송 천안·아산까지 확대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직진배송의 당일 배송 서비스 권역을 기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스타일에 따르면, 지그재그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천안 동남구 17개 동, 서북구 8개 동 및 3개 읍, 아산시 10개 동, 1개 읍, 2개 면까지 확대한다. 이제 충청권에서도 오후 1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앞서 지그재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의 80% 이상,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에서 직진배송 당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직진배송은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빠른 배송 서비스로, 당일 또는 익일 새벽 배송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밤 1시 이전 주문 시 다음날 도착하는 일반 배송 ▲오후 1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도착하는 당일 배송 등으로 구성된다.

지그재그는 당일 배송 권역 확대뿐만 아니라 배송 출발률과 배송 보장률 등의 지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상품이 물류센터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비율을 뜻하는 배송 출발률은 현재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 모두 99%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카카오스타일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호조에 작년 흑자 전환

매출 5476억, 영업익 963억 기록  
R&D 확장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 단일 매출로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SK바이오팜은 6일 지난해 4분기 실적 성장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지속적인 미국 내 성장세 및 활발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바탕으로 이룬 쾌거다.

SK바이오팜의 2024년 연 매출은 54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4.3% 급증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963

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 했다.

SK바이오팜은 "마일스톤과 같은 일회성 매출의 도움 없이 세노바메이트 매출 성장만으로 이룬 최초의 연간 흑자라 뜻깊다"며 "지난해는 대한민국 혁신 신약 상업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한 해"라고 설명했다.

세노바메이트의 2024년 미국 전체 매출은 4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2%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도 세노바메이트는 미국 시장에서 탄탄한 처방수(TRx) 성장세를 유지, 전 분기 대비 약 16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별 매출 증가 폭을 경신했다.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시장 입지도

넓어지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총 누적 처방 환자 수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혁신 신약 상업화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또한 브라질 신약승인신청(NDA) 신청을 시작으로 중남미 약 17개국 진출을 진행 중이다.

중국 NDA 제출을 통해 마일스톤 수익을 확보한 점도 2024년 매출 호조를 견인했다.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 파트너사들이 국가별 승인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적응증 및 연령 확장을 통해 시장 확대도 노리고 있다. 올해 내에 부분 발작을 넘

어 전신발작(PGTC)으로의 적응증 확장에 대한 임상 3상 탑라인(Top-line) 결과를 확보하고, 소아 환자의 복용을 쉽게 하는 현탁액 제형을 개발해 NDA 제출할 예정이다.

세노바메이트 후속 상업화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차세대 신규 모달리티로 선정된 방사성의약품 치료제(RPT), 표적단백질분해 치료제(TPD) 개발 및 저분자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 확장을 통해 포트폴리오 역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2심 승소

"2031년까지 개발사 권리 보호"

HK이노엔은 최근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물질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1심 특허심판원뿐 아니라 2심 특허법원까지 오리지널 제품을 개발한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판결은 HK이노엔이 개발한 케이캡의 적응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에 대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 적응증은 최초 허가 적응증과 동일하게 위산 분비 억제제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산 관련 질환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케이캡 물질



HK이노엔 '케이캡' 제품군. /HK이노엔

특허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다.

HK이노엔은 해당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됐다. 이는 특허심판원 심결과 동일하게 특허법 제95조의 '용도'는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 한정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재확인된 결과다.

제30호 국산 신약인 케이캡은 지난 2019년 출시부터 현재까지 국내 소화

성 위양용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2000억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K이노엔은 케이캡 발매 후에도 적응증을 확장하고 제형을 변경하는 등 후속 연구개발로 케이캡 경쟁력을 지속 강화했다.

그 결과, HK이노엔은 케이캡에 관한 특허로 2031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까지 존속되는 '결정형특허'를 갖고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원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케이캡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제품인 케이

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가지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 왔다. 해당 회사들은 앞서 연장된 케이캡 물질특허의 효력이 케이캡 최초 허가 적응증에만 미치고,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HK이노엔은 "제네릭 개발사의 주장은 케이캡 물질특허 원존속기간 만료 직후인 2026년에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려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개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로, 향후에도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국산 신약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초코 우유 크림도넛. /SPC 던킨

던킨

## '촉촉하고 폭신하게~' 초코 우유 크림도넛

SPC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은 초코 우유 크림도넛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초코 우유 크림도넛'은 던킨만의 노하우로 만든 촉촉하고 폭신한 도넛 속에 부드러운 초코 우유 크림을 가득 채운 제품이다. 여기에 크림 모양의 초코 사인판을 올려 귀여운 비주얼까지 더했다.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초코와 부드러운 우유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에게 큰 사랑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크림도넛 시리즈의 새로운 플레이버다. 발렌타인·화이트데이 등 기념일 시즌을 겨냥해, 겨울철 선호도가 높은 초코 플레이버와 우유 풍미로 부드럽고 진한 달콤함을 강조했다. 우유·딸기요거트·바닐라 슈로 구성된 기존 크림도넛 라인업을 한층 더 확장했다.

비알코리아던킨관계자는 "기념일 시즌을 맞아 특별한 날 즐기기에 좋은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